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2022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수 완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지도교수 김 수 영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수 완

김 수 완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12 월

위 원 장 구 인 회 (인)

부위원장 박 정 민 (인)

위 원 김 수 영 (인)

국문초록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수완

본 연구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년 참여자가 빈곤을 극복하고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자활사업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돕고 이를 통해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1a). 기존 자활사업은 중장년층의 참여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 청년층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6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도입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모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리적으로도 자립에 걸림돌이 되는 가정불화,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복합적인 자립방해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활연수원, 2019).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는 경제적인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취·창업 지원과 함

게 정서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이상아, 2022), 최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사업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과도기에서,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업단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 연구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 자활사업의 지향점에 대해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활의 목적과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활의 개념은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나아가 탈빈곤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자활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자활만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 자활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리·정서적 자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활의 의미에 대해서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과정’(Hong et al, 2009)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났다. 나아가 자활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참여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자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augherty & Barber,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참여자가 경험하는 자활사업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청년 참여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셋째, 그들이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대상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틀 분석법/framework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 표집방법은 세평적 사례선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K지역자활센터의 실무진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았다. 연구 참여자 모집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에 위치한 K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대~30대 자활참여자로써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4년 11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자활사업 참여경험’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의 경험’, ‘자활의 의미’로 살펴보았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2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소주제, 청년자활사업 참여경험은 3개의 주제묶음과 6개 소주제, 자활의 의미는 2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에서는 청년참여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자활사업에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2가지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청년 참여자는 가족의 수급권 탈락을 우려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실직한 이후 집에 머물러 있던 청년 참여자에게 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던 청년 참여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활사업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받았지만 자활사업이라는 제도 내 안주하여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에서는 ‘취업 준비하는 과정’,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으로 3가지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청년 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 참여경험을 자격증 취득과 같이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경험하게 될 전반의 활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표를 설정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참여자는 사업단 속에서 관계들을 통해 지지받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 참여자 간 동질감을 통해 스스로 위안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2가지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청년 참여자는 자활의 모습을 ‘경제적 자활’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활의 본질적인 의미인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즉 탈수급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청년 참여자는 자활의 의미를 정서적 자활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의 의미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자활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청년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자활 과정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년의 경험에 대해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활의 기존 연구 흐름이 경제적인 초점에서 정서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활사업, 빈곤 청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질적연구

학 번 : 2019-22675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0
제 2 절 자활사업	11
1. 자활사업 개요	11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18
3. 자활사업 관련 외부제도	22
제 3 절 자활사업 속 청년	25
1. 청년에 대한 기존 논의	25
2. 자활사업 속 청년	27
제 4 절 자활사업의 목표	31
1. 자활의 전통적 접근 : 경제적 자활	31
2. 자활의 포괄적 접근 : 정서적 자활	33
3. 기존 연구의 한계	39
제 3 장 연구방법	41
제 1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41
1. 질적연구방법	41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41
3. 자료분석방법	45
제 2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46

제 3 장 연구 결과	48
제 1 절 청년 자활참여자 소개	49
제 2 절 자활사업 참여 경험	53
1.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53
2. 자활사업에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	60
제 3 절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 경험	66
1.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41
2.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	72
3.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	76
제 4 절 자활의 의미	84
1. 경제적 자활	84
2. 정서적 자활	87
제 5 장 결론	90
제 1 절 결과 요약 및 논의	90
제 2 절 연구의 함의	96
1. 이론적 함의	96
2. 정책적 함의	97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14

표 목 차

<표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연도별 주요 변동 사항	7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현황	10
<표 3>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현황	12
<표 4> 자활사업 연령별 현황	18
<표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일반적 특성	20
<표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일반적 특성	21
<표 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의지와 능력정도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23
<표 8> 2018-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학력	28
<표 9>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회기 구성	38
<표 10> 연구 참여자	43
<표 11> 반구조화 설문지	44
<표 12> 연구결과 정리	48

그 립 목 차

[그림 1]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13
[그림 1] 자활역량 판정 점수와 자활사업 대상자 사업종류	15
[그림 3] 자활사업 업무 흐름도	17
[그림 4]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20
[그림 5]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13

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청년 자활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자활의 의미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신설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이하,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활사업 참여경험, 자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청년은 불안정한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이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빈곤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020년 기준 청년층(15~29세)의 낮은 고용률(42.2%, 전체 60.1%)과 높은 실업률(9.0%, 전체 4.0%)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1). 그리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4%로 전체 평균 62.5%보다 약 14.0% 낮다(통계청, 2021). 청년가구의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2006년 15.2%였던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15.2%에서 2016년 19.9%로 증가하였고, 청년층(19~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를 시작으로 2014년 9.0%, 2016년 10.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김문길 외, 2017).

코로나19는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내몰았다. 청년층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은 이전 경제위기 당시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Bell & Blanchflower, 2011). 청년층은 이미 노동시장 내 자리를 잡은 중장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자는 경제위

기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집단이다(황수경, 2010). 실질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청년층은 급격한 고용률 감소를 겪었다. 2020년 1월에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고용률 감소는 0.8%인데 반해 20~29세 청년 고용률 2.5% 하락하였다(통계청, 2021).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쉽게 유출되도록 작용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은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청년층 일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19~39세 기준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214,399명에서 2021년 07월 기준 각각 269,062명으로 늘어났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1).

빈곤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 중 하나인 자활사업에서도 청년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활사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2). 기존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장년층이 대부분인데, 최근 20-30대 청년들의 자활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력단절 중장년층의 기술훈련 중심으로 구성된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 6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도입되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모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리·정서적으로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동기부터 빈곤을 경험하고 빈곤의 대물림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고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다수이다(정병오 외, 2019). 청년자활사업 참여자 기초현황 분석 자료(정병오 외, 2019)에 따르면 청년 참여자 중 기존에 자활사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4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 근로위주의 경험만을 제공하며 그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활사업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정병오 외, 2019).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과 같이 경제적인 자활을 촉진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내재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서적인 지원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8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매뉴얼이 전면 개정되었다. 기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취업·창업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다.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자활사업 실천현장에서는 “대상자 및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며 “당초 사업의 취지를 살려 조건부 수급 청년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토로하였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매뉴얼이 변경되어 대상자의 특성과 자활프로그램의 차이로 현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과도기에서,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참여자는 사업단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나아가 그들에게 자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의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자활관련 논의들은 자활의 개념과 지향점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이 지배적이었다. 자활사업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빈곤층을 최대한 복지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작은 복지를 추구하는 제도로 존재해왔다(Gowdy & Pearlmutter, 1993). 이러한 제도적 이념 하에, ‘자활’의 의미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의되었다. 즉, 자활은 “더 이상 복지급여를 받지 않고 일과 소득의 측면에서 노동계층(working class)에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Hawkins, 2002), “스스로 취업노력을 통한 생활수준

의 향상으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박경숙, 방능후, 2001)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보니 자활사업은 탈수급률, 취·창업률, 취·창업유지률, 매출액, 수익금 등의 지표를 통해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자활사업은 낮은 경제적 성과를 지속해왔는데, 실제 참여자 중 탈수급 비율은 10% 이상으로 넘은 적이 없고 취업이나 창업을 성공하여 사회에서 구직을 성공한 비율도 20%를 넘은 적이 없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결과는 자활 사업의 목적 및 자활사업 평가가 자활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최상미, 2018). Thaden & Robinson(2010)는 자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자활을 ‘경제적 목표 성취를 위한 정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과정’(Hong et al, 2009)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자활 과정을 반영하는 포괄적 접근이 주장되고 있다(김인숙, 2008; 노대명, 2006; 엄태영, 2010; 2014, 최상미·홍영표·김한성, 2017, 최상미, 2018, 김소형, 김경호, 2020).

Daugherty & Barber(2001)는 자활은 고용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충분한 소득을 가지거나 아니거나, 혹은 수급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며, 자활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augherty & Barber, 2001). 즉, 자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활실천과 자활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 성과조차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청년 참여자가 경험하는 자활사업은 어떠

한가? 둘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청년 참여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셋째, 그들이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 참여자가 빈곤을 극복하고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자활사업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보건복지부, 2021a) 한국의 최저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에서 육구별 급여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급여체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개별화되면서 급여종류별로 기준선이 다층화 되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었다. 이때 자립지원의 원칙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21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수급자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크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a)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되고,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보장가구에 포함된 사람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가구에 포함된

다.1)

하지만 수급가구의 자녀의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규정은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들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적용된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규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취·창업한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한다(보건복지부, 2021a). 2004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시작으로 수급가구 자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연도별 주요 변동 사항

연도	주요 변동사항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단, 18세부터 3년간 적용(군복무, 재학기간 제외)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부양능력 없음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미만,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으로 부양비 부과율은 15%에 해당)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보장가구원인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가구로 적용 확대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도 적용)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 문항 추가 -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녀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기준 변경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부양능력 없음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 미만,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으로 부양비 부과

1)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된다(보건복지부, 202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율은 15%에 해당)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기한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점부터 문항 추가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 (만 18세, 단,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점)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운영방안구체적으로안내 별도가구 가구원 중 취업자녀(조손가정의 취업손자녀 포함)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나)-2)-①²⁾의 별도가구 특례를 재적용하지 않음. 동 특례는 취업자녀를 수급자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동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취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취업자녀는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로 적용하는 경우,가구원에서 제외된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로 처리하지 않음. 취업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한 가구에 복수의 취업자녀 인정. 단, 부양의무자 판정은 취업자녀 개개인 별로 판단함.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이름을 정함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할 수 있는 가구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추가 대상가구에 가구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성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변경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부양능력 없음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으로 부양비 부과율은 15%에 해당)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사항 추가 자퇴생도 이에 준하여 재입학·신규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적용 휴학·자퇴, 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기한 3년 내에 복학·재입학·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당초 적용기한 3년 내에서만 보장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가구 '만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수정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가 가구로 수정 적용기한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 취·창업자녀의 만 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3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특례 적용 중단)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서 적용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도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①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소득기준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추가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 '18년 기준 253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3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A×30%)+(B×100%)]
2019년	• 대상가구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확대

출처 : 각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다(보건복지부, 2021a).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1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대 간 수급권 대물림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기존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가족 중 자녀가 성년이 되어 취업할 때 전체 가족이 수급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체 가족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성지, 하재영, 2019). 요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낮은 근로활동은 수급자의 낮은 근로능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자녀의 경제활동에 이러한 복지 함정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가구 자녀인 청년들의 근로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최근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었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2)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상 3~4급 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신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자가정

되었으며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는 의료급여뿐이다. 아래 <표 2>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완화되었다.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현황

구분	2015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2021년 10월
생계 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 애포인 포함 가구		부양의자 가구 노인·중증장 애포인 포함 가구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 인 가구	노인, 한부모 가구	폐지
의료 급여				부양의자 가구 중증장애 인 포함 가구 (소득 하위 70%)	부양의자 가구 노인 포함 가구 (소득 하위 70%)	-	
주거 급여			폐지	-			
교육 급여	폐지	-					

한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태곤 외(2020)자료에 따르면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래로 지난 20여 년간 수급자의 연령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대와 30대 청년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기초보장제도 수급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로, 수급률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대의 경우 수급자 수와 수급률은 미미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근로연령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수급자 중 청년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장기수급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가 확대될 경우 저숙련, 저기술 등을 가진 수급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태완 외, 2020).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로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김태완 외, 2020).

제 2 절 자활사업

1. 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자립을 촉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등장하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해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근로 연계 복지(workfare) 제도이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돕고 이를 통해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1a).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1b)에 따른 자활사업의 대상, 운영 흐름 등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급여특례자³⁾, 시설수급자⁴⁾,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⁵⁾이 있다(보건복지부, 2021b).

3)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4)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생계 급여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만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일반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29,042명 중 조건부수급자가 9,969명으로 34.3%로 가장 높고 일반수급자와 차상위자가 8,194명(28.2%), 6,217명(21.4%)로 그 뒤를 따른다.

<표 3>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현황6)

단위 : 명(%)

보장구분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자활특례	시설수급자
계(29,042)	9,969(34.3)	8,194(28.2)	6,217(21.4)	4,534(15.6)	128(0.4)

출처 : 정해식 외.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원자료 : 자활복지개발원내부자료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한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평가는 우선 근로무능력자⁷⁾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정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자로 설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1차 의학적 평가 결과가 1차 의학적 평가 결과가 3~4단계에 해당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

6) 2019년 12월 기준

7) 근로무능력자는 연령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정한 사람, 중증장애인이거나 3급이상 상이 등급자,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그리고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성 질환자인 경우로 설정된다.

정된다.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점수 또한 2단계는 활동능력 평가 점수 63점 이하, 1단계는 55 점 이하가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다. 이렇게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4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두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자활사업 안내

[그림 1]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판정된 조건부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대학생, 장애인,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 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이 있는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콜이나 약물 중독 등 치료과정에 있는 경우 등은 조건부과 유예를 받는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도서벽지, 북한이탈주민, 사회봉사명령이행자, 외국인수급자, 계절적 질병악화 대상이나 단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2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 단기적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하는 조건제시 유예자가 있다.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은 단계적 발전전략에 따라 자활의욕고취, 자활능력개발, 시장진입을 통한 자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에 따라 비취업대상자와 취업대상자로 구분한다.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일반 노동시장에서 즉각적인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은 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알선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하도록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낮거나 욕구가 높지 않아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 위탁기관이나 시군구를 통하여 자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활사업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기업·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이 곤란한 대상 중심’의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취업촉진사업 등 즉시 취업적합자 중심’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분한다.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장에 진입 가능한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사업에, 밀착 사례관리와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복합 취약 계층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배치된다. 2018년 2월부터는 취업우선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할 경우 우선의뢰 기준을 선별의뢰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활역량평가 결과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자활사업에 배치하고 있다.

이때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은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라,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구직 욕구, 가구여건 그리고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들 평가점수들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2020년 현재 이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45~80점 이상의 참여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중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에 배치된다. 그리고 45점 미만의 참여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배치된다.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보 건 복 지 부 자 활 사 업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80점 미만)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자 활 근 로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자활사업 안내

[그림 2] 자활역량 판정 점수와 자활사업 대상자 사업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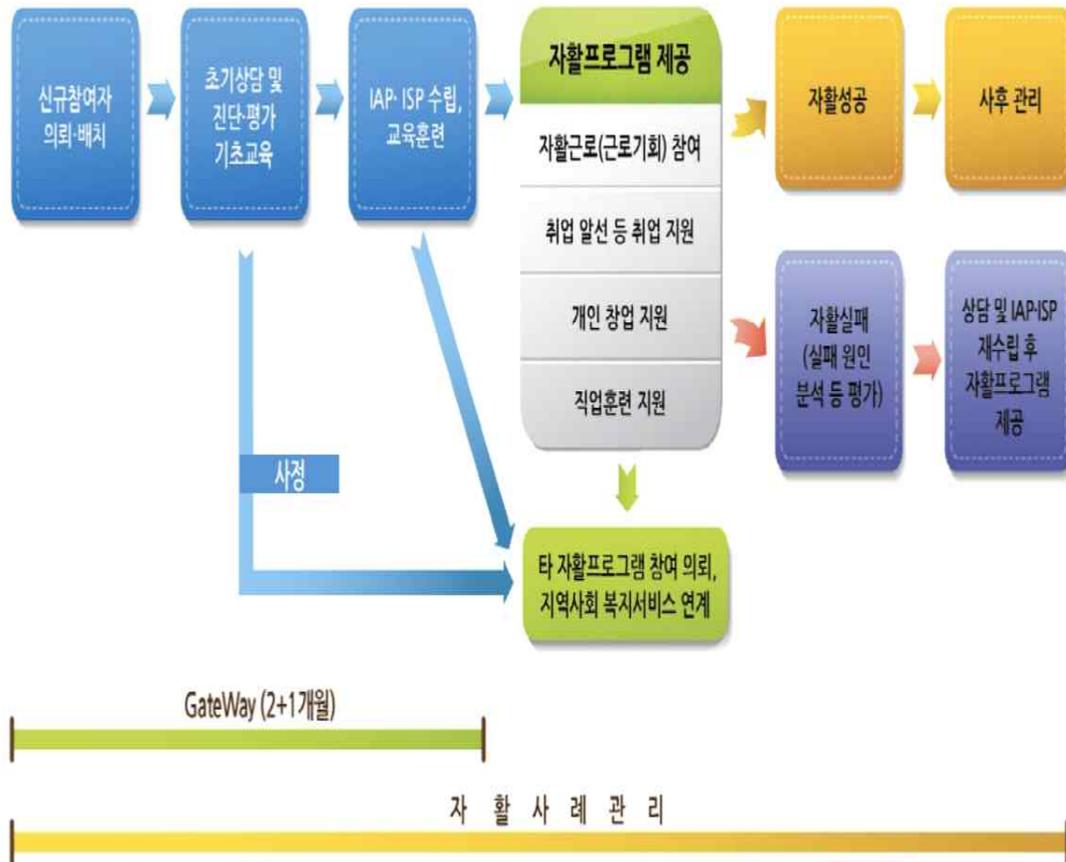
자활사업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기업·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이 곤란한 대상 중심의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취업촉진사업 등 즉시 취업적합자 중심의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로 구분된다.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가 불필요하고 즉시 시장에 진입 가능한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사업에, 밀착 사례관리와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복합 취약 계층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종류들로는 현재 예비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시간제 자활 근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 광역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이 있다.

자활사업 운영절차는 크게 참여자 의뢰·배치, Gateway, 자활프로그램

참여, 자활성공·실패의 과정으로 [그림 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배치된다. 그리고 자활센터로 배치된 자활참여자는 Gateway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게 된다. Gateway 과정에서는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자활참여자의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Gateway 과정은 기본 2개월이 소요되며, 추가적으로 1개월 더 수행될 수 있다. Gateway 과정 이후에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취업알선, 개업 창업 지원, 직업훈련을 지원받는다. 이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⁸⁾인데,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활근로사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간 차이가 있지만 자활사업 5대 전국표준화사업⁹⁾을 바탕으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이며, 취·창업 혹은 탈수급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한다.

8) 자활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절차가 ‘참여-Gateway-자활근로(사업단 참여)-취·창업’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자활근로과정에서 사업단에 참여하며 취업알선, 창업 준비 등을 지원 받는다.

9) 5대 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 표준모델의 권고 사항이며, 영농사업, 외식사업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화사업과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2021b) 2021 자활사업 안내

[그림 3] 자활사업 업무 흐름도

2019년 기준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29,042명 중 50대는 10,748명으로 37%를 차지하며 참여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60대 이상과 40대가 7,541명(26%), 6,005명(20.7%)으로 그 다음으로 참여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중이 높다. 한편, 최근 20-30대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4> 자활사업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9세 이하	1,185	1,281	1,549	2,403(9.3)
30-39세	1,788	1,753	1,783	2,345(8.1)
40-49세	6,024	5,353	5,261	6,005(20.7)
50-59세	9,718	9,477	9,808	10,748(37)
60세 이상	6,854	7,438	8,242	7,541(26)

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w.or.kr/>, 정해식 외.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원자료 : 자활복지개발원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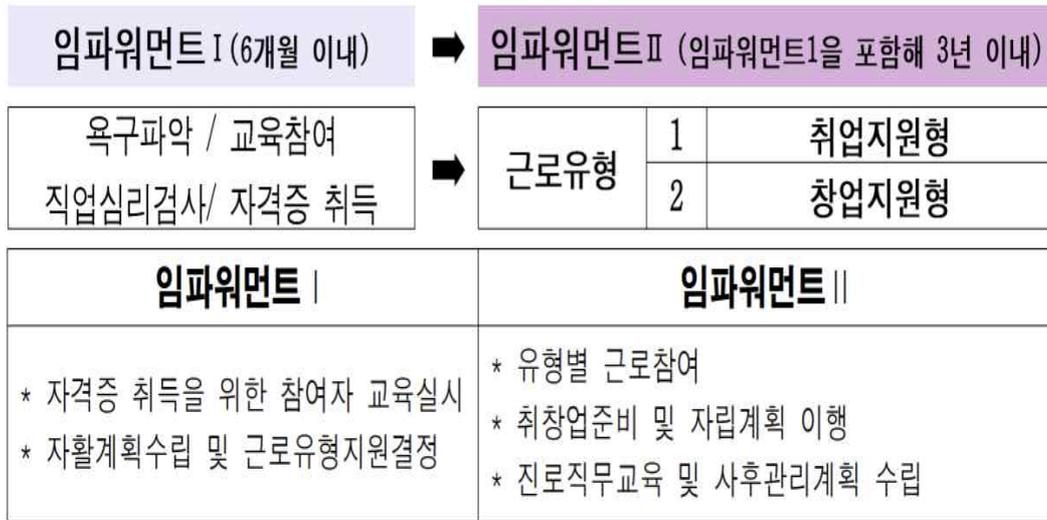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청년층의 자활참여가 증가하면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근로사업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중장년층의 참여 비율이 높아 청년층 참여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가 되더라도 중장년층 참여자들과 문화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2018). 또한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의 직종은 청년층의 욕구나 특성에 맞지 않는 직종들이 대부분이어서 청년층에 적합한 새로운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2018)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경우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특성을 보였는데(보건복지부, 2018),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서비스로서 2018년 6월에 도입되었다. 2020년 기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65개 사업단에서 588명이 누적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매뉴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본 사업단은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및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 자조모임을 통하여 청년 참여자 간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한다.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자활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성인을 위한 기술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직업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 또한 중요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운영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크게 임파워먼트 I, 임파워먼트 II로 구분된다. 임파워먼트 I은 청년 자활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계획수립과 임파워먼트 II 근로유형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임파워먼트 II는 근로유형별 근로를 참여하게 된다. 근로유형은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으로 나뉜다. 취업지원형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일반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업진로 탐색, 직무 역량 향상, 직장 생활 적응력 향상, 직업경력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업지원형은 청년사업단 내에서 매출활동을 통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파워먼트 I의 참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전체 참여기간은 3년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1)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업무 매뉴얼

[그림 4]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5>와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45%, 55%로 비슷한 수준이다. 학력은 고졸이 약 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20대가 70%이상으로서 평균 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약 86%가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의 참여자가 가구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의 수급여부 및 유형은 <표 6>과 같다. 참여자의 수급 유형은 조건부 수급이 6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 수급 15%, 차상위 10%, 자활특례 7.5% 순이다.

<표 5>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41	45.0
	여성	295	55.0
학력	중졸이하	42	7.8
	고졸	318	59.3

	전문대졸이상	176	32.8
연령대	20-29세	383	71.5
	30-39세	153	28.5
혼인 상태	미혼	461	86.0
	기혼	25	4.7
	이혼/사별	42	7.8
	기타	8	1.5
가구주 여부	가구주	268	50.0
	비가구주	268	50.0
동거인 유무	유	314	58.6
	무	222	41.4

출처 : 최상미(202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및 효과성

<표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	백분율
수급여부 및 유형	조건부수급	349	65.1
	일반수급	82	15.3
	자활특례	40	7.5
	특례수급가구원	4	0.7
	시설수급	10	1.9
	차상위계층	51	9.5

출처 : 최상미(202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및 효과성

한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최근 2021년 8월 매뉴얼이 취업·창업 중심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직능 역량 및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사업 기조에 명시하고 있지만, 변경된 매뉴얼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서는 임파워먼트Ⅱ의 근로유형으로 자활근로형¹⁰⁾이 존재하였는데, 개정 매뉴얼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자활근로형이 사라지면서 청년 참여자는 외부 기업의 인턴이나 혹은 사업단에서 매출활동을 하게 되었다. 자활근로형이 사라지면서 청년 참여자는 취업·창업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자활근로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대상자 특성상

10) 기존 예비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정되어 해당 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유형이다.

취·창업 준비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취·창업 과정에서도 부적응 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기존 매뉴얼에서는 임파워먼트Ⅱ에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 매뉴얼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임파워먼트Ⅰ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기존 매뉴얼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수강이 자활근로로 인정되었지만 개정 매뉴얼에서는 외부교육은 자활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정 매뉴얼에서는 개인별 취업처 발굴을 위한 구직활동은 자활근로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창업과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활동을 지양하고 취·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

3. 자활사업 관련 외부제도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도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비중이 가장 높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판정된 대상인데, 이때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부과 이행에 있어서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세정 외, 2020). 국민취업제도는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어 2021년 1월부터 운영되고 되고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되는데 취업지원은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그리고 생계지원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데 월 50만원으로 6개월 제공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자의 취업의지와 능력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의지와 능력정도 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능력 낮음	능력 높음
의지 낮음	① 복지지원+직업훈련·일경험 연계	② 복지지원을 통한 취업장애요인 해소
의지 높음	③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연계	④ 취업알선을 통한 조기취업

①·③ : 지역·산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기업과 연계할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①·② :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의욕 고취, 금융서비스, 육아서비스 등 지원

④ : (취업능력 높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 제공

출처 : 일자리위원회(201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개편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 2013년 도입된 취업 우선 지원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특화프로그램(자활근로)을 통해 재도전을 지원”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3:2). 2014년부터 자활사업에 배치되던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높은 참여자들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우선 배치하기 시작하자,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 미약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진입과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

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취업의지와 능력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일자리위원회, 2019)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의 제도적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활사업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보다 근로능력이 낮거나 근로의지가 낮은 참여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장년층에 비해 비교적 자립 역량이 높은 청년층(10~30대)의 탈수급율 저하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10-30대의 탈수급율은 2017년 4.3%에서 2019년 2.3%로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제 3 절 자활사업 속 청년

1. ‘청년’에 대한 기존 논의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국립국어원, 2021)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이행을 하는 중요한 발달단계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교육 연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난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은 계속 연장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전환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 관련 연구자들은 21세기의 청년의 이행기가 이전 세대보다도 더 연장(protracted)되었고, 더 복잡(complex)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hazardous)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Fahmy, 2006). 청년의 독립으로의 이행과정이 길어지면서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Arnett, 2004).

중요한 점은 청년기 독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현상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는 집단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독립을 미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가 순조롭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최후의 의존처(last resort)’ 역할을 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황정미·김영, 2013), 독립된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차이가 커져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김수정, 2010).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청년들은 현 시대의 ‘청년’으로서 겪는 이행의 곤란과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한 원인은 청년기의 빈곤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최상미 외, 2019). 청년층의 빈곤은 “생애 주기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시기로 간주되기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짧은 이행, 혹은 통과기간 정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김수정, 2010:51). 하지만 이러한 청년기 빈곤 문제는 그들의 성인기 이행 과정 곤란을 가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빈곤 경험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결혼 이후, 장년이 되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상흔효과(scaring effect)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Scarpetta, Anne, & Thoma, 2010).

하지만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청년빈곤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 청년빈곤 연구에서는 청년빈곤 현상을 노동시장, 고용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청년층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아동과 노인 등 전통적 사회취약계층과 다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청년빈곤은 근로빈곤의 측면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과 청년빈곤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접근한다(Aassve et al., 2006; Kangas & Palme, 2000; Pavis et al., 2001; Smeeding & Phillips, 2002; 김태완, 2012). 그렇기 때문에 청년 빈곤의 문제에 대한 개입의 초점이 고용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년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심리·정서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빈곤의 다차원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빈곤은 소득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시간사용 등을 종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문길, 2017). 코헤이(2018)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청년들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족과의 불화나 단절, 집단따돌림, 대학진학과 대학졸업 이후 취업 실패 등을 경험한 것이 보고되었다. 최상미 외(2019)의 연구에서 빈곤 청년들은 고용 및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무기력감, 불안감, 무책임함 등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의 채무,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함과 같은 법적·재정

적 문제, 낮은 직업 역량 및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문제,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 및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중복적으로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방안 연구(김지경 외, 2018)에 따르면 경제적 박탈 경험이 많은 청년들이 우울과 불안이 고위험인 집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빈곤청년은 경제적인 영역 외 심리·정서·사회적 측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 빈곤은 개인의 다차원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년의 빈곤문제는 비단 소득 빈곤의 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성장·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세대와 달리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워져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또한 청년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청년의 빈곤은 노동시장, 일자리와 관련되어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고, 이에 따라 개입의 방향을 고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청년의 정책은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빈곤 청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기존의 고용 중심 정책에서는 청년의 다차원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자활사업 속 청년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수의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활·자립과 관련한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높은 연령이 구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노대명 외, 2002),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립 및 구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경환 외, 2009). 하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이 적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성과

또한 낮아진다는 논의(전병유 외, 2010; 백학영, 조성은, 2012),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권승, 2005).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김소형, 김경호, 2018). 청년자활사업참여자 기초현황 분석¹¹⁾(정병오 외, 2019)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에 속해있는 경우가 87%(117명)인데, 청년의 경제적 조건은 출생가족인 부모의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년 내부에서도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 24.4%, 대학교 중퇴가 9.9%, 중졸이 9.2%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상아, 2022). 대졸자의 비중이 높고 고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청년 참여자는 대부분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25~34세 미만 대졸자의 비율이 64%인 것을 감안하면 학력 수준이 일반 청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성취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청년 참여자는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표 8> 2018-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학력

	2019	2020	2021
무학	0.6	0.5	0.3
초졸	1.5	1.8	1.9
중졸	9.5	10.2	9.2
고졸	55.7	52.6	50.0
대(중퇴)	9.1	8.4	9.9
대(재학중)	3.8	3.6	3.7
대졸	19.5	22.5	24.4
대졸이상	0.2	0.5	0.5

출처 : 이상아, (2022)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정책현황
원자료 : 2018년-2021년 9월까지 자활정보시스템 DATA

11) 2019년 1월에 청년자활사업 참여자 기초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청년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자활센터 22개소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초분석에 따르면 평균연령 25.3세이며 남성 48%(65명), 여성 53%(70명)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빈곤은 청년기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효진(2008)에서는 아동기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이룰수록, 그리고 빈곤의 기간이 길수록 아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낮은 학업성취도 및 학교실패, 사회부적응 등 성인기 생산성 및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아동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랜기간 빈곤에 노출되었던 경우, 청년이 되었을 때 근로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민중, 이주미(2018)에서도 아동기의 빈곤기간의 경험이 길수록 근로의욕 없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24~28세의 경우 구직활동포기가 빈곤기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며, 아동기 2~5년간의 빈곤을 경험한 경우 구직활동포기 비율이 19.3%였으며, 아동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1.3%로 나타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은 청년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가능성과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Noh & Lee, 2017; 남재량, 2006; Robson & Team, 2008), 수급자 청년들은 NEET의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

자활사업 속 청년들은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K지역자활센터의 청년 참여자는 심한 우울~중증 우울상태가 34%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척도 상 상담 필요자가 72%로 나타났다¹²⁾(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1).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가정에서의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자활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김승의(2007)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인 상태인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용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청

12) 2020년 1월~9월까지 K지역자활센터 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참여자 50명(누적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년층의 정책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속의 청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내에 있는 청년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활사업에서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 4 절 자활사업의 목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목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것으로, 이들을 근로의 의무를 지닌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복지에 의존하는 수급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Cheng, 2010). 90년대 이후 주요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활’의 키워드와 함께 검색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빈곤, 근로연계, 복지의존, 자활사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자활’은 그와 연관된 자립 혹은 자조 등의 본래 의미 보다는 신자유주의형 빈곤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된 특정의 의미 혹은 사업 명칭으로 재구성되어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혜숙, 2015). 본 절에서는 자활의 개념과 지향점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인 경제적 자활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포괄적인 접근인 정서적 자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자활의 전통적 접근 : 경제적 자활

자유주의 복지체계가 재구조화되면서 진보적인 자유주의(advanced liberalism)로 알려진(Rose, 1996a; Dean, 1999) 근로연계복지 국가(workfare states)(Jessop, 2002)에서는 시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McDonald & Marston, 2005).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 복지 수혜자를 고용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Long, 2001)이 계속되었고 자활은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제도들의 목적으로서 존재해왔다. 자활은 복지제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정책적 목표로 뿌리내렸고, 자활사업은 복지제도로부터의 벗어나게 함으로써 ‘작은 복지’를 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활제도인 TANF(Transitional Aid to Needy Families) 제도는 복지 수급자를 사적 노동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상미, 2018).

자활의 사전적 정의가 ‘제 힘으로 살아감’ 혹은 ‘자립’(국립국어원, 202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활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을 포괄할 수 있기에 근원적으로 자활의 의미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자활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입각한 복지의 원칙으로 좁게 협의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정혜숙, 2015). 자활은 제도에 내재된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Long, 2001)의 의미로 통용된다. 자활은 독립(independence), 자조(self-reliance), 안녕(well-be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Cancian & Meyer, 2004; Braun et al, 2002) 일부 복지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 혹은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ancian & Meyer, 2004; Parker, 1994). 대다수의 연구에서 자활은 소득 기반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괜찮은 임금(decent wage)을 제공하는 좋은 직업(good jobs)을 가지는 것 이해된다(Bowen et al, 1995; Caputo, 1997; ; Gowdy & Pearlmutter 1993; Johnson & Corcoran, 2004;). 엄태영, 주은수 (2016) 경제적 측면의 자활은 적극적 의미의 자활개념과 소극적 의미의 자활개념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우선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과 같은 공공부조로부터의 지원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박경숙, 박능후, 2001). 반면, 소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은 일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만 이루어진다면 공공부조지원을 받는 것은 상관없다. 복지수급을 받고 있지만 일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지게 되는 경제적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말한다(Freeman, 1997).

국내의 자활 연구도 자활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일련의 연구에서 자활은 취창업 여부, 수급탈피 여부 등에 따라 자활을 성취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이분법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박경숙·박능후, 2001; 이영하·조원탁, 2004). 이에 따라 경제적인 지표의 달성정

도에 따른 자활 여부 혹은 자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자활의 주된 접근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광국(2013)은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참여자의 취창업률과 탈수급률로 측정하였으며, 백학영·김경휘(2013)에서는 상향이동, 탈수급, 취창업률을 활용하여 자활성공률을 측정하였다. [2017~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부각되는 항목은 자활성공률(취·창업률, 탈수급률)과 취업 유지율이다. 이는 경제적 자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평가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자활 성과는 주로 탈수급, 취업, 창업 등의 결과적 성과로 구성되다보니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경험이나 인식의 변화 및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권지성 외, 2020).

경제적 측면만 강조한 자활은 한계가 드러났는데, 경제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활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자활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함으로써 참여자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직업훈련제공과 사업단 근로 참여와 같이 일원화된 개입이 자활 사업의 주를 이루어왔다. 즉, 자활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제한된 실천과 평가로, 이는 다시 낮은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최상미, 2018). 자활사업 평가에서 경제적 성과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산출하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평가 경향으로 인해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과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권지성 외, 2020).

2. 자활의 포괄적 접근 : 정서적 자활

자활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자활의 의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려

는 시도들이 등장했다. Gowdy & Pearlmutter (1993)는 경제적 측면에서 탈빈곤을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같이 자활의 이분법적인 이해에 반대하였고, Hawkins(2005)는 자활에 대한 협소한 개념화가 자활사업 현장에서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실천으로 이어지며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활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환경, 정서적 측면 그리고 복지체계를 포괄한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ong et al(2009) 또한 자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정책가의 시선이 반영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도 자활에 관한 경제적 접근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련의 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자활 과정을 반영하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김인숙, 2008; 노대명, 2006; 한상진·김용식, 2007; 엄태영 외, 2008; 정원오·김진구, 2005; 송인한 외, 2013; 엄태영, 2014; 최상미, 2017;2018). 자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활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측면은 자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며, 학자에 따라 정서적 자활의 개념을 일상적 삶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정원오·김진구, 2005; 엄태영 외, 2008; 최상미, 2017), 자립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박경숙·박능후, 2001; 강남식 외, 2002; 이상록, 2003; 이형하·조원탁, 2004; 정원오·김진구, 2005; 송인한 외, 2013; 최상미, 2017), 정서적 역량강화(최상미, 2017) 등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자활의 단계적 성취로서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정서적 자활을 실현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자활 외에도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망 향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활 또한 자활의 목표로 꼽히곤 한다.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박경숙·박능후,

2001:2)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엄태영(2014)에서는 정서적 자활을 긍정적 삶의 태도, 일에 대한 생각, 자아상, 자립의지, 통제력, 대인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서적 자활은 대인관계과 같은 사회적 자활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자활을 사회적 자활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것이다.

자활을 이해함에 있어 전통적인 측면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는 자활에 대한 접근이 특정의 합의 과정 없이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시작되어 대중화되었다는 점을 지적된다(최혜숙, 2015). 일반적으로 자활의 개념은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가? 혹은 정부지원의 복지혜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의 경제적 지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치를 반영하는 자활 개념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현실과 경험, 근로 조건을 포괄하는 보다 생태적 차원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Garces, 2003). 이에 대해 Daugherty & Barber(2001)는 “정책가의 시각에서 비롯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협소한 자활에 대한 이해가 자활 현장을 왜곡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시각으로부터 자활이 재정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들에서는 빈곤층에게 근로 연계 제도들이 빈곤을 탈빈곤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합적 원인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자활의 접근을 고려함에 있어서 자활사업의 참여자 현실을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Kneipp, 2000; Riger & Staggs, 2004; Hong et al., 20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입각하여 참여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로 Gowdy & Pearlmutter(1993)는 ‘취업’과 ‘탈수급’으로 자활을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이며 이렇게 정의된 자활은 저소득 구직자들의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Gowdy & Pearlmutter(1994)는 224명의 저소득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활의 개념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자율성과 자기결정’, ‘자신과 가족의 안녕(well-being)’,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기본적

자산 구비'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여자의 시각으로부터 자활 혹은 자활사업을 이해하는 국내 연구는 김인숙(2008), 정혜숙(2015), 최상미(2018)이 있다. 김인숙(2008)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성매매 여성 6명과 자활실무자 34명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활기관의 실무자와 자활당사자의 자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활을 '결과적 자활과 과정적 자활의 결합', '독립적 자활과 상호의존적 자활의 결합', '경제적 자활과 자주적 자활의 결합'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활에 있어서 '결과 중심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이외의 과정 중심의 비가시적 요소'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정혜숙(2015)은 빈곤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활의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인이 복지 의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활을 성취하고 있지 않거나 자활에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복지의존과 자활의 성과는 이분법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 포괄적 차원의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참여자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자활은 '복지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상미(2018)는 자활의 전통적 접근에서 참여자의 시각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 지원' 등 경제적 측면 역시 자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외에도 '자신감 회복'이나 '삶과 근로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와 같은 일상생활 회복, 정서적 역량강화, 직업 역량강화, 사회적 지지망 형성 등 경제적 자활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상의 다양한 측면 또한 자활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자활의 개념과 지향점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인 경제적 자활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포괄적인 접근인 정서적 자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자활에 대한 접근으로 지배적이었던 '경제적 자활'은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에 초점을 두었고 이는 자활이 가지는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활의 의미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시각은 반영하여 자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활사업에서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서적 측면의 접근 또한 간헐적으로 시도되어왔다. 근로의지 의식교육이 기반이 될 때 취창업 유지와 같은 경제적 자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9년 사례관리에 초점을 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도하였으며, 2013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최상미, 2018b).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정서적 자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였다. 희망 리본 프로젝트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립계획을 바탕으로 자활방해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연결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취업상담을 제공하였다(엄태영, 주은수, 2016). 희망 리본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5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자활 사업 내에서의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최상미, 2018b). 국내에서도 희망 리본 프로젝트 외 정서적 안정 및 동기부여를 위해 자활 사업 내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영환, 상종열, 2013; 정연정, 유지형, 2014), 긍정심리 프로그램(오정영, 최응용, 2011),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권복순 외, 2012),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 (아영아, 김민호, 2011),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TIP(최상미 외, 2017) 등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자활 사업 내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이하 아동, 가족 및 여성 혹은 17-24세의 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성찰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Anderson et al., 2018).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매뉴얼(최상미, 김윤주, 2019)에 따르면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은 미국 시카고 지역 저소득 구직

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TIP(Transforming Impossible into Possible)을 한국 자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개발되었다.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은 정서적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활 성공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창업 등 근로와 관련된 자신의 목표를 찾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변화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것을 독려한다.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며 6~10명 규모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회기별 구성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회기 구성

회기	주제	활동
1	괜찮은 나에서 출발하기 1 : 나를 소개합니다	1차 설문조사
		나를 소개합니다
		촉진자의 메시지 전달
2	괜찮은 나에서 출발하기 2 : 스스로에 대한 격려	내가 바라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
		내가 가진 능력과 강점
3	삶의 목표 설정	나의 장례식
		나에게 쓰는 격려편지
4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1	첫발 내딛기
		내가 편안할 때를 활용하기
5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2	첫발 내딛기 구체화
		장애물 제거하기
6	새로운 시작	인터뷰(소감나누기)
		롤링페이퍼
		희망서약활동
		2차 설문조사
6회기 종료 후 1개월 후 (시작 2개월 시점)		
7	더 나은 나로의 여정	내가 했어요(희망서약활동 확인)
		내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는 나
7회기 종료 후 3개월 후 (시작 5-6개월 시점)		
8	변화에 대한 축하	수료식
		3차 설문조사

출처 : 최상미, 김윤주 (2019)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자활연수원

3. 기존 연구의 한계

자활에 대한 전통적 접근의 한계와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 그리고 자활 참여자의 시각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연구 자체가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자활 인식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연령에 대한 구분 없이 ‘이용자 전체(최상미, 2018)’이거나 ‘여성(김인숙, 2008; 정혜숙, 2015)’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기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청년층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로 최상미(2019)에서는 수급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빈곤 청년의 삶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빈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등 최근 논의되는 청년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가족 자원의 부재에 따른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열등한 자리매김,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 채무와 생활비 압력과 같은 생존의 위기, 이른 나이에 노동 시장 진입”(최상미, 2019:54) 등 비빈곤 청년들과는 다른 삶의 궤적을 보이고 있었다. 최상미(2019)의 연구는 빈곤 청년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탐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경험은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소형·김경호(2018)에서는 20대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소형·김경호(2018)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고 조건부과로써 비자발적이긴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 내에서 존재에 대한 이해와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빈곤청년에게도 정서적 영역이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였으며,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의미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그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연구대상자가 비교적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소형·김경호(2018)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활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등장 이후 청년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 내 청년 참여자의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자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자활사업 참여기간의 분포를 다양하게 표집하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에서의 청년들의 자활사업 경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경험과 자활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방향과 그들에게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자활사업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활사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활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일부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양적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실시되어 왔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양적 연구를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파악하였다. 질적 연구는 자료를 해체·추상화·개념화하는 한편, 이들을 연관 짓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이면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김인숙, 2016)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자활의 의미와 그에 따른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목소리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때 청년의 연령제한은 만 19~39세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두었다. 연구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정(reputational case selection)으로 선정할 것이다. 세평적 사례선정은 특정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이 길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아 선정하는 방법이다(강준혁, 주완태, 201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고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10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질적 연구 수행에 있어서 몇 명의 연구참여자를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된 이론은 없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기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 내외의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였다(김인숙, 2008; 김소형, 김경호, 2018; 최상미,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수를 참고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10명을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K지역자활센터의 실무진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를 추천받았다. 연구를 진행한 K지역자활센터는 연구에서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충분한 청년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를 한 기관에서 표집하는 것은 표본이 한정되는 한계를 가지지만 연구 참여자 모집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첫째, 연령대 20~30대로 청년자활도전사업단 참여 가능연령으로 제한하며, 둘째, 수급자 유형을 조건부 수급자로 한정하였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순으로 비중이 높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수급권 유지를 위한 강제 참여사항이지만, 일반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의 동질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로 연구참여자를 한정하여 표집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비장애인이고 넷째,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신규진입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기간 중 2개월은 Gateway 과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공통적으

로 자활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다. Gateway 과정 이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단 참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30대 자활참여자로써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년 11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 참여자

참여자 구분	자활사업 참여시기	자활사업 참여기간	연령	성별	학력
참여자 1	2021. 02 ~	9개월	26세	남	대졸
참여자 2	2014-2017, 2019. 11 ~	4년 11개월	27세	남	고졸
참여자 3	2021. 04 ~	6개월	24세	남	고졸
참여자 4	2020. 08 ~	1년 2개월	31세	남	고졸
참여자 5	2020. 09 ~	1년 1개월	23세	남	대학 중퇴
참여자 6	2021. 08 ~	3개월	23세	여	대학교 중퇴
참여자 7	2021. 08 ~	3개월	25세	남	고등학교 중퇴
참여자 8	2019. 02 ~	2년 9개월	24세	남	고졸
참여자 9	2020. 02 ~	1년 9개월	24세	남	대학교 중퇴
참여자 10	2020. 09 ~	1년 1개월	24세	여	고졸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활참여자의 관점으로 그들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사용하는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고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Kvale, 199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들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과 자활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표 11>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추가질문을 하는 등 유동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별로 평균 60-90분간 진행되었다. 심층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편의가 고려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곳으로 K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센터 내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표 11> 반구조화 설문지

구분	질문
도입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삶은 어떠했는지?(성장배경, 직장 경험 등)
	가족 및 친지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학창시절(자활사업 참여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지?
자활사업 참여경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언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자활사업’ 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
	취업성공패키지나 다른 사항들 말고 자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지?
자활사업 참여경험	자활사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프로그램, 사업단)
	현재는 자활사업 내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프로그램, 사업단)
	참여했던 활동 혹은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중 기억 남는 경험이 있다면?

	(자활프로그램 안내서 활용) 청년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활사업을 참여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활센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활사업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미래 계획에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가?
자활의 의미	자활사업의 목적이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위 질문과 연계) 동의한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자활사업을 하며 느끼기에 자활사업의 목적이 어떠한지?
	(위 질문과 연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준비과정이 자활사업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보통 자활을 ‘스스로 살아간다, 스스로 생활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이 자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은지?
	본인이 생각하는 자활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자활사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희망하는 부분 있는 지?
	(자활사업에 재진입한 경우)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자활사업 참여자라는 것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

3. 자료 분석 방법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역적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의 일종인 프레임워크 분석법(-framework analysis)을 사용해 분석하고자 한다(김인숙, 2016). 프레임워크 분석은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자료에 친숙해지는 단계, 둘째, 이론적 분석 틀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 셋째, 분석 틀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단계, 넷째, 주제별로 자료가 재배열되는 단계, 다섯째, 자료의 개념, 패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체계를 도식화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Ritchie & Spencer, 2002).

연구자는 자료 분석에 앞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서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용 속에서 의미 전환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의미 단위들을 정리하였고, 의미 단위들을 참여자의 진술 혹은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의미단위들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2개의 주제묶음과 5개의 소주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은 4개의 주제묶음과 10개의 소주제, 자활의 의미는 2개의 주제묶음과 6개의 소주제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조건, 사례비 등의 지급 내용,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연구 참여 도중에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구진과의 사전접촉 시 다시 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리며, 연구 참여 희망자들이 연구의 목적, 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중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가 확정된 이후 동의서 작성 시점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동의서를 읽고,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충분히 이를 숙지한 이후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접 조사에 임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 참여를 중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녹취가 진행됨을 사전에 알렸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므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조치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면 면담을 진행할 때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며, 심층 면접 진행에 있어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른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였다. 확산 상황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비대면 면담을 요청할 시에는 화상을 통한 비대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크게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이하 청년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하 청년자활사업단)에서의 경험’, ‘자활 인식’으로 살펴보았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자활사업 제도 내에서의 경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하 청년자활사업단)에서의 경험’은 청년자활사업단의 특성에 따른 경험을 나눠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활의 의미’는 참여자들의 생각하는 자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활사업에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년자활참여자의 자활경험을 바탕으로 자활사업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해보고, 청년자활참여자의 자활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결과 정리

대주제	주제묶음	소주제
자활사업 참여 경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가족의 수급권 유지를 위한 선택
		집에 머무르기보다 자활사업에 참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 필요함
	자활사업에 안주하 게 될까봐 두려움	자활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주 하게 될까봐 두려움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처럼 동 화될까봐 두려움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에서 참여 경험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짐
	나를 이해하고 자신 감을 가지는 과정	자신의 적성을 찾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짐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	또래 수급자 간 동질감을 통해 위안을 얻음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께서로부터 도움을 얻고 존중받는 과정
자활의 의미	경제적 자활	수급권 탈출 욕구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목표는 탈수급
	정서적 자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는 것
		정서적 자활이 선행되어야 함

제 1 절 청년 자활참여자 소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성장과정과 자활사업으로 귀결된 경험을 각 참여자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1은 어린시절부터 수급자로 지냈다. 5~6살 무렵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와 남동생과 살기 시작했다.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몸이 편치 않으셨다고 한다. 그 무렵부터 참여자 1은 음식점 서빙, 자동차 공장, 당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했다. 참여자 1은 아르바이트와 함께 대학 생활을 보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적절한 수입이 없자 구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수급자 조건이행을 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 또한 조건이행에 있어서 취업

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자활사업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2는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로 지냈다.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라는 사실때문에 성격이 위축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2는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관련한 전공을 하면서 포토그래퍼를 꿈꿨다.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진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거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합격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되어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대학교 진학이 좌절된 이후로 집에만 계속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집에만 있지 말고 자활사업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여 20살 무렵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3년 정도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군복무를 하였다. 사회복지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동안 친해진 실장님을 통해서 옷가게 매장 관리직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3개월 가량했다. 이때 매장관리 업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를 1개월가량 참여했다고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옷가게 매장관리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다. 3개월 근무를 하고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고 참여자 2는 다시 집에서 머물렀다.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던 참여자 2는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3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사촌들의 집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한다. 중학생 때 아버지, 형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고,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를 주어 가족들을 떠나 쉼터로 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쉼터에서의 삶은 마음이 편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쉼터의 엄격한 규제들로 쉼터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특히 숙식이 제공되는 아르바이트는 연락이 닿는 대로 참여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는 하나를 꾸준히 하지는 못했으며 대부분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곳에서 했다고 말했다. 참여자 3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에

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통신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이동이 잦고 일이 고되어 반년 이상 일을 한 적은 없으며 취직과 퇴사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다 취업성공패키지에 6개월 가량 참여하게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이 된 법률 사무원에서 2달 가량 일을 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4는 법률 사무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고 퇴사하였다. 퇴사 이후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5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급권자로 살아왔다. 오랜 기간 수급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급자라는 것이 본인의 족쇄라고 말하기도 하며, 수급자로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5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신을 양육하는 것을 벅차 했고 주변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주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우울감이 높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군복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뤄진 군복무로 인해서 마땅히 취업을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자가 끊기게 되면 부모님의 의료 지원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6은 중학교 때부터 쉼터에서 생활했다.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참여자 6만 기록되어 있으며 부모와 형제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참여자 6은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쉼 없이 계속 해왔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난 후 병원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실직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구청에 찾아가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던 차에 자활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7은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로 살아왔는데, 본인 나이와 수급자 기간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몸이 성치 않으셨던 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 돌아가셨고, 그 이후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셨다. 참여자 7이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가 일을 하던 중 허리를 크게 다쳤고 그 이후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 참여자 7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수급권 탈락을 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수급자 조건 이행을 해야 한다는 구청의 연락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8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살다가 15살 때 청소년 쉼터 와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17살 무렵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적이 많다고 한다. 하루는 너무 심하게 싸워 경찰이 출두하였는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8은 20살 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노동 강도가 높아 금방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수급자 조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9는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로 지냈으며 현재는 부모님,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기간이 끝나자 구청의 연락을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10은 어렸을 때부터 수급자로 지냈다. 참여자 10은 몸이 좋지 않아 학창시절에 큰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으며 잦은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며 지냈다. 참여자 10은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근무를 지속했으며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총 2년간 정도이다. 참여자 10은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일을 쉬고 있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빈곤 청년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그들 부모의 빈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안수찬, 2011).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급권자로 살아왔다. 부모세대로부터의 빈곤을 경험했으며, 한부모 가정으로 자랐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방임·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가족 혹은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 경험이 있기도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모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자활사업 참여경험

자활사업이라는 제도 내에서 경험들은 크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분석되었다.

1.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본 연구 참여자는 모두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수급자 가구로 살아왔던 청년 참여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 수급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취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청년 참여자는 가족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집에 머무르기 보다 자활사업을 선택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조건 속에서 자활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1) 가족의 수급권 유지를 위한 선택

참여자 5는 본인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취업으로 증가된 소득이 부모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부모들은 수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과 지급에 있어서 기본 단위인데,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 가구로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수급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된다. 청년의 경우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년 수급자들의 경우 부모들 또한 수급자인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청년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소득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수급자 끊겨버리면 온 가족이 다 끊기잖아요. (참여자 5)

참여자 5의 경우 부모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의료급여 상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의료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항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¹³⁾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수급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속해있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이 된다(보건복지부, 2021a).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규정으로 수급자 가구의 자녀의 경우 소득이

13)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발생하더라도 부모의 수급권은 보장되도록 실시된다. 하지만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판단되게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급여의 경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도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부모님 연로하시면 이거 봐주면 안 되나? 빨리 취업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로 여기 나가버리면 일단 수급자 끊기면 병원비가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그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군대도 갔다와야 하고 미필자를 좋은 기업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한 회사 다녀서 수급자에서 일반 소득자로 이 소득 간격이 있잖아요. 이거를 못 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취업도 어중간한데 했다가 진짜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될 것 같고 그래서...(중략)... 문제는 제일 큰 게 의료혜택이 너무 크니까. 그것까지 하면 진짜 천금인데. 그냥 자활사업 참여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5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도 하였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본인의 소득이 안정화가 되는 기간까지 수급권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던 참여자 5는 구청으로부터 수급권 탈락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에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가족의 의료급여 혜택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참여자 5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수급권을 유지하고 가족의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무·회계 관련하는 중소기업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기도 했구요... (중략) 그리고 틈틈이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수급자 끊긴다고 하니까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에 정식적인 소득이 생기고 그게 몇 개월간 유지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정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게 판단 되면 그때 끊기는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통보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일을 그만뒀죠. (중략) 그리고 알바하면서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은 현금으로 받고 그랬어요. 그때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소득이 잡히면 안 되니까.. (중략) 제가 버는 소득이 부모님이 받는 수급자 혜택이 끊기는 것만큼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대기업 월급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학력이 좋아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회사 사장이어도 저 안 뽑죠. (참여자 5)

결국, 참여자 5는 자신의 부모님의 의료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수급권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 5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수급권이 끊어지면 의료비 부담이 높아져 생활이 힘든 현재 상황에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는 급여 혜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자신의 조건으로는 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자활참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2) 집에 머무르기보다 자활사업에 참여

청년 참여자는 취업이 힘들어 집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가족의 권유를 통해서 집에 머무르기보다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9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만 지냈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9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1년 2개월간 참여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기간이 끝나자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와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제외 하면 거의 대부분 집에서만 머물렀다고 한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만 있었죠... (중략) 1년 2개월 정도 취성패하고... 그거 끝나고 구청에서 연락 와서 자활하라고 해서... (참여자 9)

참여자 9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게임만 했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청년 자활참여자 중 오랜기간 빈곤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 정병오 외(2019)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례도 많아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버스타기, 가게에서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 9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집에 머물러 있기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다.

여기 안 왔으면 뭐... 집에서 게임하고 있겠죠... 아니면 유튜브 보던가... (참여자 9)

한편, 직장에서 실직되거나 취업의 실패로 집에 머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10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지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청년들은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집에 머물러 있던 청년에게 그들의 부모는 자활사업을 권유하였다. 실직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권유로 자활을 오기도 하였고, 어머니의 자활사업 참여 권유로 집에서 벗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가족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청년 참여자들은 부모님은 자활사업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자활사업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참

여를 권유하며 자활사업 참여가 세대를 넘어 계속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를 했어요. 2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도 터지고... 자랑 너무 안 맞아서 관두고... 집에만 있다가 부모님(어머니)이 여기(자활사업) 어떠냐고 하셔서 오게 됐어요. (참여자 10)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집에만 있을거면 자활이라도 가보라”고 하셔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니었으면 집에만 있었을지도 모르죠... (참여자 2)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 필요함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도 하였다. ‘돈이 없으니까’, ‘당장 일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들의 상황에서 ‘빨리 연락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이직과 퇴직을 자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현재의 삶을 살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솔직히 일을 하나를 꾸준하게 많이 못 다닌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계속 일은 해야되고... 주차 요원도 했었고, 미술 용품점에서 일도 했었고 학교에서도 식비 벌려고 식비랑 학비 대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는거... 조리 고등학교여서 야간반 주간반이었거든요. 야간반이었고 주간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식자재 나르거나 식자재 손질하거나 하면서 돈 벌고 점심시간에 도서 사서하고 (중략) 주말에도 알바하고또 식당 여기저기 막 다

니고요... 펜션도 다니고 숙식 제공되는 곳으로... 칠판 공장 가보고 방충제 공장 가고요. 진짜 내가 당장 일을 못구하면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모아놓았던 진짜 힘겹게 모아놓았던 돈은 다시 깨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싫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거 같아요. 일단 빨리 연락되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참여자 3)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자활사업 참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여 자활사업을 선택하여 들어오기도 하였다.

일을 잠깐 했었는데 짜잘짜잘하게 알바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있었던 게 병원 코디네이터로 잠시 일했을때 그래서 코로나 또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그만두고 좀 한동안 일을 못했어요. 한 반개월 정도. 그러다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죠. 이런 게(자활사업) 있다고 해가지고... (중략) 제가 직접 찾았어요. 제가 K구 주민센터에 제가 여쭙봤고...(참여자 6)

그래서 여기서(자활사업단) 그냥 공부 좀 만 더 해서 나가자하고 여기로 들어왔어요... (중략)... 솔직히 지금 당장 취직할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여기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데로 가야지... 근데 만약에 안 왔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취업해 가지고 경력이랑 자격증으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또한 학창시절 하지 못했던 그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나중에 온전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도 하였다.

자활 사업단 나와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좀 못 했던 것들 여기서 했던 걸로 좀 후회를 안하도록... 제가 그림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해서 내가 나중에 일을 할 때 집중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좀 직업의식 가지기도 힘들고... 근데 그걸 좀 여기에서 좀 해소를 하는거죠. 그 경험은 어쨌든 내 안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핑계거리를 좀 없애버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냐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되든 안 되던 좀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자활사업 나오고 나서는) 그냥 생계를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만약에 여기서 하던 공부가 잘 되면은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돼도 후회는 없고. 되게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이제 수급자 탈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서도 뭔가 뒤돌아보는 것 없이 후회없이 앞만 보고 살 수 있는?(참여자 7)

2. 자활사업에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

1) 자활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참여자 3은 자활사업 참여 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참여자 3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경

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의 수급권 유지를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 5도 수급권 유지와 생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편안한 마음과 동시에 자활사업 편안함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

편안한데... 겁이 날 때 있어요.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무지해진다고 해야 되나?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무지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여기가 편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돈만 주면은 편하게 일하면 나가서 돈을 못 번다고 했잖아요. 의존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자체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참여자 5)

‘청년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청년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의존하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을 증폭시켰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복지제도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복지제도에 의존해 있는 것은 그들의 나태함이 원인으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복지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도덕적 해이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탁현우, 2013). 참여자 2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였다. 성인이 되고 난 후 자활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자 2는 취업을 위한 면접장에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 언급했었다. 참여자 2는 면접관에게 ‘나도 젊은데 왜 자활사업에 참여했냐’는 식의 타박을 듣기도 하였다. 취직을 위해 용기를 냈던 참여자 2는 면접관의 타박으로 자신이 더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제 경력이 자활사업밖에 없으니까, (면접에서) 자활사업 참여했다고 말했는데 나이도 젊은데 왜 그런 걸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경력을 쌓는 다른 일을 하지 왜 자활 같은 걸 했냐고... 원래 제 성격상 위축이 많이 되는데, 자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위축이 되고... (참여자 2)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년 참여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내재화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4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또한 청년 참여자는 청년은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최하', '밑바닥', '사회에서 제일 바닥'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낙인화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5는 자활사업 참여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며 사회에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벌고 잘 살아야지 굳이 자활 참여를?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굳이 자활참여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중략) 솔직히 자활 이거 최하잖아요. 밑바닥... 말 그대로 사회에서 제일 바닥... 저소득층보다 더 아래.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참여자 4)

너무 창피해요. 이 자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어 가지고 요즘 소득에 따라서도 사람이 놀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느껴요. 그냥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없다는 느낌. 그런 차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자활사업 참여하며 경제적 안정은 찾게 되었지만 청년으로서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사이에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으면서 막상 현실에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기 실업이 만연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수급자로 살아왔던 청년 참여자는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빈곤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른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지만 단기간 일자리에 그치는 등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희박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정수남 외, 2012). 또한 수급자라는 것이 자신의 족쇄가 되어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하였으며, 취업이라는 장벽을 넘기에 자신감을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수급자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우울하죠. (참여자 4)

결국,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활사업이라는 최선을 선택을 한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사회에서 ‘청년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장벽이 높은 현실 속 쉽사리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인 시선과 취업의 장벽 속에서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참여자 10의 말처럼 이들은 자활사업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마음은 불편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여기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참여자 10)

2)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처럼 동화될까봐 두려움

자활사업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은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일부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장기화되기도 한다. 자활사업에 장기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참여자 3는 자활사업에 익숙해져버린 청년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자활센터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과격하게 표현하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탈수급 하기 위해서 여기 출근하는 건데 솔직히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왜 일하러 나가냐 라는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여기에서 있는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로 표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하고 흠짓했어요. 그 얘기 듣고 충격 받아서 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저도 저렇게 변질 될까봐...(참여자 3)

참여자 5 또한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사업에 적응하게 되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 참여자는 같은 사업단 내에 물을 흐리는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나태해진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다.

여기 있는 기간이 길면 당연히 이런 거에 적응이 되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찌 보면 이게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가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나. 물론 제가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 있는 삶 자체가 좀 느슨해진다는 거 많이 느껴서 싫어요. (중략) 여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 중에 내보내는 게 맞아요. 물 흐리고 돈만 받아먹는 사람들은 내보내는 게 맞아요. 자격증 따라고 해놓고 안하면 그냥 내보내는 게 맞아요. 저는 안 그러겠지만, 만약에 저도 여기에 물들면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참여자 5)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 제도에 안주하여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처럼 자신이 변할까봐 우려하였다. 참여자 4는 ‘그냥 시간만 떼우고 돈만 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장기 참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 참여자는 오랜 기간 수급자로서 살아왔으며 수급자로서의 지원체계들이 삶이 일상적인 차원까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지원체계의 부족이나 수급자로 살아오면서 스스로 위축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 청년 참여자는 마음 깊숙이 수급자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장기참여를 하지 않도록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약간 뭐랄까. 너무 길면 나태해진다고 그래야 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시간만 떼우고 그냥 돈만 벌자 이런 게 생각하시는 선생님 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좀 같이 있기는 불편할 때도 있고... 오래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저는 그냥 어찌 보면 수급자라는 게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5)

제 3 절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

본 절은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대해서 주목하고, 청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의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청년 참여자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의 경험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1.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1)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빈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많은 기업들은 과거의 학벌이나 학력 위주의 채용관행에서 벗어나 능력위주의 채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이나 소위 말하는 ‘스펙’은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김문길 외, 2015). 대다수의 기업에서 입사지원서에 자격증과 어학성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고, 수상경력과 해외연수 등의 경험을 요구하는 곳도 다수다. 취업준비생의 97.5%가 스펙이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청년들은 더 좋은 곳, 더 안정적인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펙을 쌓은 것은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첫 취업 평균 소요시간이 10.1개월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졸 이상의 경우 7.7개월, 고졸이하의 경우 1년 2.2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참여자의 대졸 비율은 11%로 우리나라 25~34세 미만 대졸자 64%에 비해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취업사교육에 1인당 월 평균 30만원 가량(수도권 32만2천원, 비수도권 29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할만한 경제력과 시간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청년 참여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청년 참여자들은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며 보장받은 경제적 안정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구직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상미(2022)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참여자 중 약 78%가 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중 14%는 자격증 1개, 52%는 2개, 34%는 3개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자격증 공부 하고 있어요.(참여자 3)

지금 여기서 취업이랑 연관된 자격증 따고 있죠. 전산회계 관련 해서 공부 중입니다(참여자 4).

참여자 1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희망했던 직장에 이력서조차 내보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참여자 1은 청년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생긴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통해 온전히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요새는 원서 넣고 있어요. 3일 전에는 OO회사 시험보고 왔구
요. (중략) 만약에 여기 안 다녔으면 그냥 주구장창 중소기업 다
녔겠죠? 여기 다니니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까 취업 준비도 더 할 수 있고 제가 가고 싶었던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지원서도 내보는 거죠. (참여자 1)

한편, 청년자활사업단은 기존의 자활사업단과는 결이 다르다고 표현
하기도 하는 등 청년참여자들은 기존 자활사업과 청년자활사업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래 다른 사업단들은 뭐 신용카드 배달도 있고 일을 하는데 여
기는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온 이
유기도 하죠. (참여자 5)

다른 사업단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청년사업단에
서는 원하는 방향이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인드이
기 때문에 (참여자 6)

계속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하라고 해주시더
라고요. 자격증 공부 하는지 몰랐어가지고요. (중략) 청년이라 이
렇게 해주나 혜택을 좀 받는 거 같아요... (참여자 10)

일을 해야 되는 곳을 알았다가 왔는데 공부를 하는 곳이라 좋았
어요. (참여자 3)

청년자활사업단은 기존 자활사업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것은 사업단에서의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자활사업단은 청년 자활참여자 개인별 자활역량에 따라 대상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기존의 자활사업단은 사업단이 공유하는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수리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에 소속된 자활참여자들은 자전거 수리를 위한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 사업단’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자활참여자들은 함께 자활근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일정이상 유지되는 경우 자활센터로부터 독립하여 자활기업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사업단이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사업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업단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습득하고 사업단 내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한다. 반면, 청년자활사업단은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다. 청년 참여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취·창업이라는 목표는 공통적이지만 개별적인 욕구 파악을 통해서 대체로 본인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 따라 자활경로가 개별화되어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던 청년참여자들의 경우에도 각자 취업의 경로가 달랐으며, 자격증 준비나 교육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청년 사업단은 이게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니까 또 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1)

여기 사람들은(청년 자활참여자) 하는 게 다 달라서 저는 사진관련 해서 일하고 싶어 하고... 뭐 그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회계 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관련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달라요... (참여자 2)

기존 자활사업단과의 다르다고 인식되는 청년자활사업단은 취업을 위

한 구직활동을 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청년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혼돈을 빚기도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가지는데, 이는 청년 자활사업단과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년자활사업단은 참여자 1인 1자격증 취득, 취·창업을 통한 경제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청년 참여자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자활사업으로 혼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두 사업이 비슷하다’,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활동들) 아 그게 자활사업 인가? 아니다 그게 취성패였나보다... (참여자 2)

(취업성공패키지랑 자활사업은) 그냥 하는 것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참여자 9)

2) 규칙적인 생활 가능해짐

청년 참여자 대부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활사업 참여 이전 ‘불면증이 심해지거나’, ‘밤낮이 바뀌어 불편함’과 같이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힘들었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자활센터에 출근을 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음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최근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센터에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로 대체되거나 격일제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힘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병오 외(2019)에 따르면 청년자

활사업 담당자 대상 인터뷰에서 청년 참여자의 생활관리가 안 되는 문제를 자립의 방해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제시간에 맞춰 기관에 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기관에 와서도 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생활관리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정병오 외, 2019).

자활 참여하고 나서 규칙적으로 생활이 되니까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뛰엄뛰엄 나오니까 생활패턴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을 잘 못자고 불면증이 심해져서... 요즘 새벽 6~7시에 잠들거나 밤을 세고 나오는 적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2)

잠자고 밤에서 게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출근 안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밤낮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했죠. 밤에 잘 안 자고 거의 낮에 자게 되고... (참여자 9)

청년 참여자는 자활센터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생활패턴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추후 취업을 하였을 때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자활센터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취업과 관련된 훈련이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간패턴을 길러줘야 해요. 원래 직장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가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미리 생체리듬을 길러놔야지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5)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니까. 밤에 못자고 낮에 막 자고 그런 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랑 비슷하게 생활 패턴을 점점 맞춰가고 있으니깐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에 제가 취업을 했을 때도 자활에서 생활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깐. 아침에 출근을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도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여자 6)

2.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

1) 자신의 적성을 찾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청년 참여자는 청년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도록 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체계의 부족한 청년 참여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 자활사업단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에 따르면 청년 참여자에게 직업진로 탐색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교육에는 자존감 향상 교육, 리더십 교육,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취·창업 관련 교육(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이 포함된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자기가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교육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자기 적

성에 맞는 거 아니면 자기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 거였는지 막
찾게 해주고 그런 교육들도 있더라고요(참여자 1)

참여자 7은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부재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보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왔다. 참여자 7은 자신의 적성은 무엇이고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겨를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7은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7은 청년 자활사업단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를 가지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세울 수 있었다.

근데 거기서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좀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것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초적인 거를 알려주니까... 내가 썼던 자소서나 나를 표현하는 강점?.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해 보고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배웠던 절차대로 좀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런 거겠구나...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거 해볼 시간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중략) 혼자서 뭔가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방향성? 그런 걸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서 그 게 좀 좋았어요. (참여자 7)

청년 참여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참여자 6은 취업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목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참여자 6은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잘 맞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참여자 6은 ‘청소년지도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막연히 취업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양한 교육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약간 제 직업군 자꾸 관심 있는 분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가지고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청소년지도 관련해서 전공하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따려구요. (참여자 6)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참여자를 성공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자 10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또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여자 10은 이전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직업군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취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하고 청년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실 나가서 일하고 취직이야 뭐 하라면 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뭘해서 나아되는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취업하면 또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겠죠. 돈이 없으니까 무작정 돈 벌려고 나가서 하기보다는 좀 뭘 해야될지 알고 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겠죠.(참여자 10)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청년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자활사업단의 차이를 느끼고 있던 지점이었다. 청년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랑 자활사업이랑 비슷해요. 결국 취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취성패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뭘 할 건지 골라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취성패에서는) 직업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직업도 찾고 그런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죠. (참여자 10)

2)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짐

청년 참여자는 나에 대해서 알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 세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 참여자는 성취감을 느끼며 의욕을 가지기도 하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 6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조금씩 이루고 있는 성취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유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마음? 심적인 안정감이 들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무엇을 한다든가 어찌 됐든 간에 그쪽(취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더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겨나고...(참여자 6)

참여자 7 또한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과정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였다. 참여자 7은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 오고 나서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큰 것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여기 나와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알고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던지 이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슬슬 얻어가는 것 같고... (참여자 7)

3.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

1) 또래 수급자 간 동질감을 통해 위안을 얻음

청년 참여자는 ‘청년 수급자’라는 것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 10은 어린 시절부터 수급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많이 부끄러웠으며,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참여자 10은 자신이 수급자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참여자 5 또한 수급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 참여자 5는 자신이 수급자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자기가 수급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다. 이들은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참여자 5의 말처럼 청년 참여자는 수급자로 살아왔던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수급자라는 게 어렸을 때 좀 많이 부끄러웠죠.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쓰고... 굳이 뭐 말 안하고 알리고 싶진 않죠. (참여자 10)

수급자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말도 안 해요. 너무 창피해요. 이 자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수급자 아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참여자 5)

그렇다보니 청년 참여자는 사회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참여자 3은 청년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청년과 빈곤, 청년과 수급자, 청년과 자활사업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여자 4의 말처럼 ‘청년 수급자라는 것이 사회에서 비정상’이라는 이들의 생각은 청년 참여자 자신을 더욱 사회로부터 소외시켰다.

그냥 진짜 청년 중에서 가난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

어요. (참여자 3)

청년인데 수급자? 솔직히 비정상이잖아요. (참여자 4)

청년 참여자는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또래면서 나와 같은 수급자’인 다수의 참여자를 만나게 된다. 청년 참여자는 같은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자를 ‘비슷한 부류’, ‘또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청년’으로서 또래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며, ‘수급자’라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간 동질감은 청년 참여자가 사업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기존 자활사업단 참여 경험이 있던 참여자 8은 자신보다 스무 살 이상 차이가 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참여자 8은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자활사업단은 적응하기 수월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6 또한 참여자 간 동질감을 느끼며 사업단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 B자활센터에서 일반 사업단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부업을 하는 데 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뭔가 현타가 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K자활로 옮겼죠. 처음에는 다 낯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또래들이 많으니까. B자활 할 때는 다 저보다 스무 살 이상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또래니까 편안하고 적응하기가 좋았죠. (참여자 8)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또래기도 하고... (참여자 6)

참여자 간 동질감을 통해 청년 참여자는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였다. 참여자 2는 청년 참여자의 존재를 통해 동질감을 가지고 위축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였다. 참여자 3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 참여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립감을 해소하기도 하였고, 삶의 의지를 얻기도 하였다. 참여자 7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마음을 해소하고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저는 원래 손도 느리고 몸이 느리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활 참여한다는 게 사실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나이도 비슷하고... 다들 형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적응하기 편하고... 위안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여자 2)

나처럼 가난하고 이렇게 쪼들려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여자 3) 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완전 비슷하지는 않지만 내 또래에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조금은 진짜 조금은. 내가 많이 늦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좀 활기를 찾은 거 같기도 하고...(참여자 3)

뭔가 좀 마음이 힘들고 좀 고립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청년이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있어서 심적으로 적응하기도 편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험을 통

해서 다시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참여자 7)

물론 모든 참여자의 관계가 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자활사업단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8은 다른 참여자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일부 청년 참여자는 다른 청년 참여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7은 이러한 관계의 갈등 역시 ‘관계 구축력’을 쌓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회로 나가 대인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우연히 들었어요. 나랑 같이 있기 싫다고 했나? 아무튼 저에 대해서 뒷담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참여자 8)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트러블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먼저 겪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을 구했을 때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너무 겁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로 나가기 전 관계 구축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여자 7)

2)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존중받는 과정

가정과 사회의 지지체계가 열악한 청년 참여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10은 사회에서 직장 경험이 많았지만 단기간 일을 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살았다.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며 건강도 나빠졌고, 계속해서 그만두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도 했었다. 참여자 10은 피폐한 삶을 살았었다고 말하며 자신에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참여자 10은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담당자 선생님과 자신의 미

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되었다. 참여자 10은 혼자서 고민해야만 했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께서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도움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전에는 진짜 너무 피폐했어요. 진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도 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중략) 제가 찾아가지고 막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약간 많이 좀 알려주시고 혼자서는 잘 몰랐던 거 알려 주셨어요.(참여자 10)

참여자 6 또한 청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나서 자신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학점은행제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들은 진로와 관련된 도움 외에도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 6의 경우 수급자로서 다른 지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다. 참여자 6은 어린 시절부터 쉼터에서 생활하였으며, 가족의 부재로 인해 안정적으로 주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참여자 6은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주거문제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점을 털어놓게 되었고, LH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참여자 6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이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학점 은행제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자격증 따서 취업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왔는데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중략) 여기 들어오고 나서 LH에 대해서도 알게 됐거든요. 수급자 대상으로 LH 대출지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게 된 덕분에 얼마 전에 이사까지 가게 됐어요. 자활사업 참여하면서 집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많은 부분들이 진짜 제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이야기 나눠보고 같이 찾아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이러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다 알게 되거죠 (참여자 6)

청년 참여자는 청년 자활사업단의 목적인 취업을 위해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며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청년 참여자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담당자 선생님께서 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참여자 3은 안정적이지 못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전전하며 살았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도움 받을 곳이 없던 참여자 3은 주어진 일이면 가리지 않고 해야만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었던 참여자 3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참여자 3은 사회에서 자신을 '일회용품 마냥 쓰다버리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참여자 3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 참여자 3은 '조금씩 나이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자립에 대한 의지, 의욕이 고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전에는 일할 때 좀 나쁜 말이긴 한데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

요 그냥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마냥 대우를 하니까 그게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자활오고 나서 좀 숨통도 트이고 존중도 받고... 계속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조금씩은 나아진 모습도 보이고 싶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취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참여자 3)

‘자활센터 직원(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존중받는 과정’은 청년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자활사업단의 차이를 느끼고 있던 부분이였다. 청년 참여자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병행하고 지지해주는 것’과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것’ 때문에 청년 자활사업단이 더 좋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취성패는 거의 몇백 명씩 받으면 한 명이 몇 백 명씩 상담을 하는데 그쪽은 거의 포화 상태고 여기는 그나마 널널하니까 취성패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신경써주는 느낌? 좀 더 밀착해서 케어해주는 느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취성패는 너무 직업적인 것만 몰두하고 개인적인 관심이 좀 없는데? 그런 느낌인데 이제 자활사업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공부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것을 약간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 쌤이랑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참여자 6)

상담할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이 있다는 거...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참여자 7)

제 4 절 자활의 의미

1. 경제적 자활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참여자들에게 자활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취업’,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통해 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취업이나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밑바닥에서부터의 탈출’, ‘수급권에서 탈락될까 걱정 없는 삶’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로서 받는 경제적인 지원 이외의 부가적인 지원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1) 수급권 탈출 욕구

청년참여자에게 자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활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탈수급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청년 참여자는 오랜기간 수급자로서 자신을 낙인화하였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던 모습에 대한 탈피 욕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참여자 4의 경우 수급자라는 것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4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사회에서 가장 아래 계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밑에서 나와야 한다’ 하였다. ‘언제까지 수급자로 살 수도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수급권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수급자라는 것 때문에) 약간 우울감이 생기죠. 안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솔직히 최하잖아요. 밑바닥... 말 그대로 밑바닥 저소득층보다 더 아래.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

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밑에서 나와야지. 계속 밑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4)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제 형편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 물론 처음에는 좀 도움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왜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고, 이 수급자 뭘 탈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수급자가 살 수도 없고. 이 수급자, 수급자라는 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싫어요. 얼른 떨치고 싶어. 저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말도 안 해요. 너무 창피해요. 이 자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어 가지고 요즘 소득에 따라서도 사람이 놀린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느껴요. 그냥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없다는 느낌. 그런 차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얼른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 족쇄예요. (참여자 5)

2) 자활사업의 목표는 취업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의 모습은 취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이 명시하고 있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 자활사업의 기간을 잘 활용하여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수급자를 탈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벌고 잘 살아야지 굳이 자활 참여를? 나

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굳이 자활참여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참여자 4)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반 년 1년 해갖고 최대한 빨리 나가서 정상으로 취업해서 조건부 수급자 탈출해야죠.(참여자 4)

여기 참여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업이죠.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참여자 6)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활참여 기간을 잘 활용해서 수급자 탈출을 해가지고 혼자 자립하고 돈을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자활사업에서 준비해서 취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급자 탈출해야죠. (참여자 10)

청년 참여자는 앞서 말한 경제적 자활의 모습인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로서 지원되는 혜택들을 보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수급자로서 받고 있는 지원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입이 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 오히려 수급자로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였다.

이게 간격이 지금 제가 여기서 있는 수급자 혜택이랑 여기서(자활사업) 받는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급자 혜택, 혜택이 없는 일반 소득자 이 두 가지 선택사항에서 내가 수급자를 벗어나서 일반 소득자가 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내가 수급자였을 때 혜택 받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소득자로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월급에서 매꿔야 될 거 아니에요. (중략)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소득은 혜택이 끊기는 것만큼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적어도 대기업 월급은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참여자 5)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약간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취업을 못하면 이제 수급자 지원 끊겨 버릴테고 그걸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을 가야 이런 게 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1)

2. 정서적 자활

1)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는 것

청년 참여자들은 자활의 의미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지를 가지는 것이었다. 참여자 6은 자활의 이미지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잘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참여자 9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참여자 1 또한 ‘자신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2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활에 있어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자활이라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어요. (참여자 6)

일단 취직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고 자신감 가지고 이런 것도 가지는 게 우선이죠. (참여자 9)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자기가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러니까 사실 뭐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다 취업 아닐까요? 근데 취업 전에 이제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방향성이냐 이런걸 잘 파악하고 또 그런걸 할 수 있는 자신감? 의지를 가지는 거 그런 게 중요하죠. (참여자 1)

자활이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건 마음?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경제적인 거는 그런 마음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2)

2) 정서적 자활이 선행되어야 함

청년 참여자는 경제적 자활에 앞서 정서적 자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 참여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는 것'인 정서적 자활이 경제적 자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취업욕구 및 의지가 높은 경우 인적자본의 변수보다 경제적인 자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바 있다(Amy, 2000). 그리고 청년자활참여자는 정서적 자활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

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자활참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에 대한 의지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결국 다시 수급자 혹은 자활사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서적 자활이 단계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경제적 자활을 달성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상미(2020) 연구에서도 고용 희망, 의지와 같은 정서적 요인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솔직히 금전적으로 내가 자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약간 안정적인 거는 못 한다 보죠. 좀 오래 길게 멀리 내다봤었을 때 불안정하면은 내가 뭐 잘하는지 모르고 못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다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하고 있고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다 돈이 급해서 이제 돈을 벌고자 급하게 갖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알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정해서 내가 앞으로 멀리 오래 기간 동안 딱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정하고 그런 것들의 안정화를 갖는 게 저는 자활의 최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게 진짜 자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거나 이런 잘하는 거에 대한 탐색 없이 무작정 돈이 급해서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면 경제적으로 자활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자활을 맞이하는? 그러면 악순환이 될 것 같은? (참여자 6)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경험과 그들이 가지는 자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자활사업 참여경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 자활의 의미로 분석하였다. 이때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자활사업이라는 제도에 진입하게 되면서 경험한 것으로 자활사업 내 사업단에서 공통적인 경험을,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은 청년자활사업단에서의 경험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연구 문제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2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소주제, 청년자활사업 참여경험은 3개의 주제묶음과 6개 소주제, 자활의 의미는 2개의 주제묶음과 4개의 소주제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1. 자활사업 참여경험

자활사업 참여경험에서는 청년참여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자활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2가지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청년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청년 참여자는 가족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취업을 하기보다 자활사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의 수급권이 탈락하면 의료나 주거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급권 탈락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청년 참여자는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높아지면 가족 전체의 수급권이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제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혹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소득을 고려한 제도라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별도가구로 분리되어 부모의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그들이 취업을 하기 시작 하였을 때 일정 소득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되어 가족의 수급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취업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해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묶이곤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수급자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도 그 자녀만 별도가구로 인정되며 부양의무자로 적용되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 주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폐지되었으며,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적정 본인 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내용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 계획되어 있다(연합뉴스, 2022. 01. 06).

청년 참여자는 집에 머물기보다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실직한 이후 집에만 머물러있던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집을 벗어나 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의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참여를 권했던 청년 참여자의 어머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오히려 빈곤을 재생산하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정수남, 2019a).

청년 참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그들 자신의 생계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

해 쉬지 않고 일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자활사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혹은 더 괜찮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자활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훗날 자신이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하지 못했던 공부를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기회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둘째, 청년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안주하게 될까봐 두려움’도 존재하였다. 청년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얻은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받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활사업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청년 참여자들에게 동화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장기화될수록 제도에 적응하게 되어 결국 자신도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였다. 자활사업 장기참여는 기존 연구에서 복지함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복지함정은 사회적 보조(social assistance)를 받는 기간과 관련하여 정의되기도 하는데, 복지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지탈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복지의 부정기간효과(negative duration of welfare participation)를 복지함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Cooke, 2009). 이는 복지혜택이 장기화될수록 낙인효과, 인적역량의 퇴보, 심리적 효과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제시되고 있다(Sandefur & Cook, 1998). 중요한 점은 청년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경험

청년자활사업단 참여경험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는 과정’으로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청년참여자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활센터로 출근을 하게 되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자활사업참여를 직장 생활의 생활패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은 자격증 취득과 같이 직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시간관리와 같이 취업 이후에서 경험하게 될 전반의 활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청년자활사업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점은 기존의 자활사업과 다르다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기존 자활사업에서는 사업단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자 간 공동의 활동을 하는 반면, 청년자활사업단에서는 취·창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지만 참여자 개인 간 목표에 대한 경로가 달랐으며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졌다.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활동 경험이 있었던 일부 청년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자활사업의 활동이 유사하다고 인식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가지는데, 이는 청년 자활사업단과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을 위해 개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둘째, 청년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청년 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진로에 대한 목표가 생긴 청년 참여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자신이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들을 하면서 의욕,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청년 참여자는 청년자활사업단에서의 관계들을 통해 지지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청년 참여자는 연령이 비슷한 또래이자 수급자인 사업단 참여자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간 동질감은 자활사업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청년 참여자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자신감을 가지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청년 참여자는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과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겪기도 하였다. 사업단 담당자 선생님께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고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청년 참여자는 담당자 선생님과 자신의 현재 상황, 문제, 고민 상담을 하며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청년 참여자는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 부터의 도움을 얻고 존중을 받는 과정은 ‘사회적 지지’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받은 지지를 뜻하며(Lin et al, 1986),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포함한다(Krause, 2007). 사회적 지지는 진로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한순옥, 2014),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은, 2009; 최은숙, 이태연, 2015).

청년참여자는 담당자 선생님께서 부터의 지지받고 존중받았던 경험들이 취업성공패키지와 차이점이라 지적하기도 하였다. 청년 자활사업단은 개인적인 관심이 높고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자의 진로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구분되는 청년 자활사업단의 필요성을 청년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자활의 의미

청년참여자에게 자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 ‘정서적 자활’ 2가지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청년 참여자는 자활의 의미를 ‘경제적 자활’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활의 본질적인 의미인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탈수급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급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참여자는 자활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해 탈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 참여자는 자활의 의미를 정서적 자활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의 의미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 자활의 과정이 선행되지 못한 채 경제적 자활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서적 자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경험과 자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년의 경험에 대해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자활사업의 주요 참여층은 중장년층으로 기존 자활사업과 관련된 연구의 대상층을 살펴보면 평균 40~5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김경휘, 2017; 하승범, 신원식,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활사업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해 관심을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의 자활사업 참여경험과 자활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참여경험에 대해서 탐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경험연구(김소형·김경호, 2018)는 기존에 존재하지만 연구참여자가 기존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내 청년 자활참여자의 참여경험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자활의 목표에 대해서 기존 연구의 흐름이 경제적인 초점에서 정서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정서적 자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기반하거나 혹은 자활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정서적 자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활사업에서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과정이 그들에게 정서적 자활의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2. 정책적 함의

첫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두어 사업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다시피, 청년 참여자는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자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자활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며, 다시 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책의 환류 과정에서 정책의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정책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에 정책의 당사자의 정책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Fetterman, 1994; Beresford, 2002). 다시 말해 청년 참여자에게 자활은 자활 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단기간 내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취업 장애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정해식 외, 2020)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 자활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운영 방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두는 것은 타 제도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 청년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경험이 대부분 존재하였는데, 두 제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자활사업단의 매뉴얼이 개편되면서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제공되었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서 경제적 자활에 대한 목적성이 두드러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사업단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더욱 유사한 제도로 비춰질 수 있다. 2014년 실시된 취업우선지원제도로 인해서 근로역량이 높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배치되면서 자활사업에는 근로미약자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자활사업과의 차별성으로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을 통한 탈수급 과정에 있어서 ‘간접적인 지원제도’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성이 강하지만(서광국, 2021), 자활사업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고용의 측면을 포함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는 정서적 측면과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 것이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당초에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중요한 요소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되었던 것에 반해, 최근 취업·창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외부 제도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목적하는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두어 사업단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자활사업의 목표는 경제적인 자활이라는 점은 명시해야 한다. 결국 자활사업에서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두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살아갈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장기참여가 되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과정으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년 참여자에게 청년 참여자 맞춤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매뉴얼(최상미, 김윤주, 2019)이 개발되었지만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개발된 매뉴얼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정병오 외, 2019)이 개발되어 제공되

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청년 참여자들의 기초적 특성과 사업단 전담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안되었지만, 청년들의 자활사업에서의 경험이나 인식들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 참여자 맞춤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자면, 청년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단 내 다양한 관계를 통해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감 회복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 교육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평가체제에 대해서 정서적 자활과 관련된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활, 결과중심의 자활사업 평가체제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평가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자활사업의 현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강조하며, 청년 참여자가 가지는 다차원적인 욕구를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실천 현장의 낮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 성과 평가에서 탈수급이나 취창업률보다 ‘자활능력 향상, 준비 정도’에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따라서 근로와 복지, 궁극적인 경제적 자활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차원적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 참여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 참여자는 ‘자립지원별도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여,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취업을 하기 보다 자활사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로역량이 높고 구직욕구가 높

은 청년 참여자에게 제도적인 안내를 통해 탈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자는 K지역자활센터 청년 자활참여자에 한정되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 모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을 우선으로 둔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한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연구 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 다수의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의 중요한 운영 주체인 자활사업 참여자와 자활사업의 실무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만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자활사업 실무자의 관점을 반영한다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소속된 청년 자활참여자만을 연구 대상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내에서 청년의 자활사업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만 소속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청년 자활참여자의 경험과 그들의 자활의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로만 구성되어있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참여가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참여 조건이다. 일반수급자 혹은 차상위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나 참여 경험이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경험, 자활의 의미에 대한 탐색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청년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고하였다는 의의를 두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청년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목표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서적 자활의 측면만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제도의 목적인 자활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영역도 있지만 제도적인 결함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 제도적으로 그들을 빈곤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 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0), 23-50.
- 강준혁, 주완태. (2018).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카지노 단도박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2), 316-349.
- 고경환, 이선우, 강지원, 임완섭. (2009).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국가인권위원회. (2019). **빈곤청년 인권상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국어원. (2021).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2) <https://www.kua.go.kr/>
- 권승. (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에 중점으로. **사회복지정책**, 22(0), 179-205.
- 권지성, 조준용, 정선욱, 장연진. (2020). 자활사업 실무자들이 경험한 자활사업의 맥락과 패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232-250.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 (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영. (2016).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소형, 김경호. (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63-94.
- 김소형. (2020). **청년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Bourdieu의 이론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김수정. (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7(1), 93-133.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승의. (2007).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 과 DIY 일대기 :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김미곤, 노대명, 김문길, 임완섭, 조성은, 황도경, 김기태, 이원진, 김이배, 서광국, 이찬진, 이주미, 하은솔, 이병재, 강예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김효진. (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5), 33-42.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징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6(4), 22-33.
- 노대명. (2002).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53

- 노대명. (2006).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장애와 고용**, 16(1), 115-146.
- 박경숙, 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 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여성정책과, 2.
- 백학영, 김경휘. (2013).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9-60.
- 백학영, 조성은.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143-178.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자활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2018).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0a).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 보건복지부. (2020b). **2019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자활사업 안내(I)**
- 보건복지부. (2021).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매뉴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황**
- 서광국. (2013).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관리형 자활시험사업)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7-223.
- 서광국. (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92, 55-68.
- 송민중, 이주미. (2018). 아동빈곤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사**

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41-66.

송인한, 박장호, 김리자. (2013). 준고령층과 청장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33(1), 183-197.

안수찬. (2011). 그들과 통하는 길. **사람과 정책**, 1, 민주정책연구원

안우환 (2003)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30(3), 161-184

야마모토 코헤이. (2018). 일본 복지제도에서 청년 복지의 위상-지역청년 복지실천 철학과제를 중심으로, 2018년 제4회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43-98.

엄태영, 김동기, 허미경. (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 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 1-24.

엄태영.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2), 229-248.

엄태영. (2014). 정서적 자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1(4), 81-102.

엄태영, 주은수 (2016).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3(2), 225-250

연합뉴스. 2022. 01. 06. 대선 공약에 등장한 '부양의무자 폐지'...언제 실현 될 까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116200501?input=1195m>

윤상용, 김태완.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61-83.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0), 105-136

- 이상록,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 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 이상아. (2021).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본 코로나 19 이후 참여자 특성과 향후 정책방안, KDISSW 자활정책 Brief,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상아, (2022)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정책현황, KDISSW 자활정책 Brief,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의규, 강일규, 류지영, 조준모, 김삼수, 오학수 (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재은. (2009). **사회적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중섭. (2009).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79-106.
- 이형하, 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
- 임완섭. (2019).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365, 1-12.
- 일자리위원회. (2019),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제 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안건 1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대졸 신규 채용과 스펙 연관성 조사
- 전병유, 이병희, 황덕순, 김주영, 윤자영 (201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성과 분석, 고용노동부.
- 정병오, 김교연, 백아름. (2019). **청년 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교육프**

로그랩 가이드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
전망-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정수남. (2019a). 빈민통치와 ‘자활’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구술사연구**,
10(2), 59-103.
- 정수남. (2019b). 탈빈곤 실천의 체계적 모순과 빈민의 하비투스: 자활사
업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0(1),
189-246
- 정해식, 고혜진, 김미곤, 노대명, 정은희, 하은솔. (2019). 제2차 기초생활
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숙. (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7(4), 251-277
-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
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 최상미, 홍영표, 김한성. (2017). 한국형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시행과 효
과성 평가-경기지역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복지행정학**, 19(4), 179-199
- 최상미. (2018a) 이용자중심적 관점으로부터의 자활에 대한 재개념화, **사
회과학연구**, 25(1), 98-124
- 최상미 (2018b). 이용자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증
거기반실천과 효과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161-184

- 최상미, 김윤주. (2019).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자활연수원
-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 최상미. (2020). 저소득 청년의 자활 경로에 대한 탐구: 정서적 자활, 진로준비행동, 경제적 자활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1(1), 83-106.
- 최상미. (2021). 자활, 일자리 사업인가? 복지 사업인가?, 월간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07470>
- 최상미. (202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및 효과성, KDISSW 자활정책 Brief,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영섭. (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서울: 산업연구원.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은숙, 이태연. (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탁현우. (2013). 정책목표와 대상에 따른 일자리사업 복지의존성의 유형화.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25.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승범, 신원식. (2020).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6(2), 163-189.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업무 매뉴얼 개선의**

견(2021. 09. 23)

한상진, 김용식. (2007).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노동정책연구**, 7(1), 139- 171.

한순옥. (2014).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3, 55-88.

허용창, 한경훈, 김동진, 문혜진.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 분석. **사회복지정책**, 47(1), 143-167.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3), 89-127.

Aassve, A., M. Iacovou, and Mencarini, 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2), 21-50.

Amy, L. E. S. (2000)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Arnett, J. J., & Tanner, J. L. (2011). *Themes and variations in emerging adulthood across social classes*. In J. J. Arnett, M. Kloep, L. B. Hendry, J. L. Tanner (Eds.), *Debating Emerging Adulthood: Stage or Process?* (pp. 31-50). NY: Oxford University Press.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M. A., Brown, E., Cavadel, E. W., Derr, M., and Kauff, J. F. (2018). Using Psychology-Informed Strategies to Promote Self-Sufficiency: A Review of Innovative Programs. *Mathematica Policy Research*, (41)
- Bell, D., & Blanchflower, D.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 Beresford, Peter. (2002). User Involvement in Research and Evaluation Liberation or Regulation?. *Social Policy & Society*, 1(2), 95-105.
- Braun, B., Olson, P. D. and Bauer, J. W. (2002). Welfare to well-being transi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1), 147-154.
- Bowen, G. L., Desimone, L. M., & McKay, J. K. (1995). Poverty and the single mother family: A macroeconomic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1-2), 115-142.
- Cancian, M. & Meyer, D. R. (2004). Alternative measures of economic success among TANF participants: Avoiding poverty, hardship, and dependence on public assistanc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3), 531-548.
- Caputo, R. K. (1997). Escaping poverty and becoming self-sufficient.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4(3), 5-23.
- Cheng, T., (2010), Financial self-sufficiency or return to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among the working po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162-17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357.

- Daugherty, R. H., & Barber, G. M. (2001). Self-sufficiency, ecology of work, and welfare reform. *Social Service Review*, 75(4), 662-675.
- European Commission (2001).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 Fahmy, E. (2006).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The Millennium Survey
- Fetterman, David. (1994). Empowerment evaluation. *Evaluation Practice*, 15, 1-5.
- Gowdy, E. A., & Pear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368-387.
- Harding, S. G. (2004).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NY : Psychology Press.
- Haveman, R., & Wolfe, B.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4), 1829-1878.
- Hawkins, R. L. (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The Heller School for Social Policy and Management, Brandeis University.
- Hawkins, R. L. (2005).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4), 6.
- Hong, P. Y. P., Sheriff, V. A. &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Voices from low-income

- jobseekers, *Qualitative Social Work*, 8(3), 357–376.
- Long, D. A. (2001). From support to self-sufficiency: how successful are programs in advanc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well-being of welfare recipien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4(4), 389–408.
- Lin, N., Dean, A., & Ensel, W. M.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Florida : Academic Press.
- Mayer, S. E.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income on children's outcomes*. Wellington, New Zealand: Knowledge Management Group,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McDonald, C., & Marston, G. (2005). Workfare as welfare: governing unemployment in the advanced liberal state. *Critical Social Policy*, 25(3), 374–401.
- Noh, H., & Lee, B. J. (2017). Risk factors of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in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using panel dat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7(1), 28–38.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Paris: OECD press
- Parker, L. (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168–173.
- Pavis, S., Hubbard, G., & Platt, S. (2001). Young people in rural areas: Socially excluded or no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2), 291–309.
- Ritchie, J., & Spencer, L. (2002).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Analyzing qualitative data*, 187–208

- Robson, K., & Team, M. C. E. (2008). Becoming NEET in Europe: A comparison of predictors and later-life outcomes. *Global Network on Inequality Mini-Conference, 22*
- Scarpetta, S., Anne, S., & Thoma, M. (2010). Rising Youth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Papers, 106*.
- Smeeding, T. M., and K. R. Phillips. (2002).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Employment and Economic Sufficiency, *Annals of American Associ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 103-133
- Johnson, R. C. & Corcoran, M. E. (2004). The road to economic self-sufficiency: Job quality and job transition patterns after welfare reform.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4), 615-639.
- Kangas, O., and J. Palme. (2000).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Planning Administration Evaluation, 30*(2), 335-352.
- Kneipp, S. M., (2000). Economic self-sufficiency: An insufficient indicator of how women fare after welfare reform, *Policy Politics Nursing Practice, 1*, 256-26
-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469.
- Kvale, S. (1996). *Interviews—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iger, S., and Staggs, S. L., (2004), Welfare reform, domestic violence, and employment: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Violence Against Women, 10*, 961-990.

Abstract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perceived by
Young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 Based on the Experience of Young
Participants in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Kim Suwa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and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young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s in

order to support them to overcome poverty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lead independent lives.

With the adv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2000, the Self-Sufficiency Program has been dedicated to provide working opportunities to low-income people with working ability to help them cultivate self-sufficiency and acquire skills so that they can become self-sufficient. Moreover in June 2018,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was newly introduced as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creased. Most of the young people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s are economically vulnerable due to the poor socioeconomic status of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y usually suffer from complex problems, such as family discord,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which are psychological obstacles to self-sufficiency. Regarding this situatio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group is making efforts to provide not only employment services, but also emotional support for solving complex problems. Howev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manual of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has caused confusion in the field. In the transition period of forming the direction of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young participants evaluate and perceive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In examining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using the concepts of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emotional self-sufficiency'. In general, economic self-sufficiency means achieving welfare-exit and poverty-exit through employment or starting a business. Initially, most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self-sufficiency were discussed in terms of economic sufficiency.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programs solely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elf-sufficiency. As a result attemp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self-sufficiency as a 'process that encompasses emotional aspects to achieve economic goals' (Hong et al., 2009). Now a bunch of scholarly works claims tha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elf-sufficiency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self-sufficiency. Furthermore, it has been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participant's voices on the direc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Daugherty & Barber, 2001).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i) How do young participants evaluate the experience in Self-Sufficiency Program? (ii) How do young participants evaluate the experience in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iii) What is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that young participants perceiv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young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amework analysis.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0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aged 19 to 39. Participants were recommended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o the front line staff of the K Regional Self-Support Center located in Seoul through a sampling method of reputational case selection. Their period of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s varied from at least 3 months to up to 4 years and 11 months, and they were all conditional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he perception of self-sufficiency'. As a result, 2 topic groups and 4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s, 3 topic groups and 6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s, and 2 topic groups and 4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Fro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wo sub-themes were derived: 'the best choice in a given situation' and 'a negative perception about self-sufficiency participation and fear of being complacent'. The young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Self-Sufficiency Program for fear of losing their family's entitlement to the welfare services, whil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me out into society for those who stayed at home after losing their jobs. In addition, young participants who had to constantly work in an un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a living gained chance to prepare for a better future. Young participants made the best choice for self-sufficiency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and were guaranteed economic and time leeway, but at the same time they had a fear of being complacent within the system of self-sufficiency.

Fro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three sub-themes were derived: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neself and gaining confidence', and 'the sense of support through relationships'. While participating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the participation process was recognized not only as activities that directly help employment, such as obtaining a certificate, but also as a preparation for the overall activities they would experience after employment. There were also moments for the young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y gained confidence while participating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In addition, they started to think about their career path that suits their preference, while setting their own goals and making plans. Last but not least, young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sense of support through relationships within the program. Through the sense of unity among the young participants, they felt comfort and sense of being respected by the teachers in charge of the program.

Regarding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for young participants, two sub-themes were analyzed: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emotional self-sufficiency'. The young participants understood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as 'economic self-sufficiency'. In fact, they understood the essential meaning of self-sufficiency as welfare-exit from receiving welfare grant. The young participants also understood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in terms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For young participants,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was 'understanding oneself and having will', and they recognized that it was important to know what they were going to do and what they were good at before getting a job and become confident of oneself. From the voices of the participants,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self-sufficiency, experiencing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should be prioritiz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the experiences of young participants, which were not mainly addressed in existing Self-Sufficiency Programs. Also, while the flo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goal of self-sufficiency is expanding from the economic focus to the emotional fields, the importance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is said to be confirm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young participants in the Youth Self-Sufficiency Program.

keywords : self-sufficiency, youths in poverty, economic
self-sufficiency, emotional self-sufficiency,
qualitative analysis

Student Number : 2019-22675